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음 12월 13일) 제17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 전북 대도약을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의 결실을 이뤄 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승진 내정자 발표  
국장급에 권혁신·김태수  
송준상·안 석 등 4명 결정

## “삼락농정 · 토탈관광 · 탄소산업 가시적 성과 내겠다”

송하진 지사가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도록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슈 중심의 도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전북 대도약을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의 결실을 이뤄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청 핵심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낙후된 도세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지사는 대선정국 전환에 대비해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양대 축으로 전북 북 찾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만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에게 새만금 로드맵 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2020 대도약에 맞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진청 등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생명 R&D기관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의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농기계클러스터, 그리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등을 연계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가칭)를 조성해 아시아 최고의 농생명 벨리로 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송 지사는 올해는 전북 변화를 이끌 대규모 사업들이 완료되는 2020년을 목표점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 ▶ 송하진 지사 신년 기자회견

#### “2020 대도약에 맞춰 새만금·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육성 서민경제 안정 최우선”

2020년에는 전북도가 꾸준히 추진해 온 새만금 1단계 SOC가 마무리되고, 탄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새만금 동서 2축·남북2축 완공, 새만금 농업용지 및 신항만 완공, 새만금공항 및 금융타운 착공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2017년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라 판단하고, 2020년 대도약을 위한 초석을 공고히 다지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시책을 본 궤도에 끌어 올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수준으로 진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저성장과 통상환경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이나, 대선정국,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계획이다.

송 지사는 "정탁금지법 시행, 군산 조선업 위기, 수출 감소 등으로 민생·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전북도정의 경제정책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를 위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명품시장 육성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면서 중소기업에게 자금, 마케팅, 판로지원 등 성장 사다리의 혜택이 골고루,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민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송 지사는 "올 해는 대선과 전라도 정도 1,000년을 1년 앞둔 해로 우리가 나아가길 위한 성찰과 함께, 2020년을 기점으로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면 전북발전의 해답은 반드시 보인다"는 뜻으로 2017년도 새해 사자상어를 '절문근사(切問近思)'로 삼았다"며, 도정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송 지사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각종 비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지사는 "공무원들의 비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가 바뀔 만큼, 새로운 각오를 한 번 다지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징계하겠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정착의 감동에 대해서는 "새만금 개발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한다"며 "부분적인 접근으로 새만금을 개발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블랙리스트, 있는 것 같다”

〈문화계〉

### ▶ 최순실 국정특위 7차 청문회

조운선, 이용주 의원 질의에 "문체부 예술국장 보고 받아"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7차 청문회에 참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당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묻는 질의에 "특검수사가 진행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일관하다 이 의원이 거듭 묻자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 해 (알게됐다)"고 밝혔다. /뉴스1

## 국조특위 “K스포츠재단, 노승일 징계 시정해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9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이 재단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노승일 참고인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제정한 신성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7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증인보호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분위원회에서 위증과 불출석으로 고발된 증인에 대해 사법부에서도 단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촉구요청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전주시는 9일 승진심사 인사위원회를 개최, 4~6급 등에 대한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전주시 4급(국장급) 승진 내정자로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김태수(총무과장),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안 석(의회사무과) 등 4명으로 결정됐다.

5급(과장급) 승진 내정자는 김동조(여성청소년과) 서배원(총무과) 양한선(교통안전과) 이강열(시민안전담당관실) 임상철(공보담당관실) 최성인(자치행정과) 최현식(도시재생과) 황대욱(지역경제과) 송권태(급수과) 김국영(지역경제과) 임익철(도시재생과) 임양근(생태도시계획과) 등 총 12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진임용 내정자 심의는 결원수의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국별 안배, 현직급 근속기간, 업무추진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현안업무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승진 내정자 명단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 매일 INDEX

- 2면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확보
- 3면 - 최순실, 뇌물죄 추가 입건
- 12면 - 한옥마을 '국가대표 관광지'
- 13면 - 프로배구 신인왕 경쟁 치열

謹賀新年

# 전라북도 하늘 길

## 새만금 국제공항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마침내 공항건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